

코로나19 위기, 아프리카 잠비아를 돕습니다!

굿네이버스 USA, '굿워터 프로젝트' 실시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는)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마실 물 조차 구하기 힘든 아프리카 잠비아 아동의 감염 예방을 돕기 위한 '굿워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UN 세계물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역에 사는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잠비아 이재웅 지부장은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 지원이 급선무지만, 잠비아는 사실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하루

라도 빨리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웅 지부장은 "5천2백 달러면 잠비아 학교에 우물 뿐 아니라 물탱크와 식수대, 그리고 화장실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도 지원할 수 있다"며 "아동들에게 기초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굿네이버스 USA 김재학 본부장은 "기본적 사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잠비아와 같은 곳에서



오염된 물을 식수로 마시는 아프리카 아동 ©굿네이버스:김상동

씩 힘을 합친다면 바이러스 전파를 막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굿네이버스는 매월 10달러 정기 후원자 1천명을 모집해 아프리카 잠비아에 매년 20개 이상의 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후원 신청은 굿네이버스 웹사이트(kr.goodneighbors.us)에서 가능하다. 또한 전화번호 657-256-7329 로 이름과 주소를 문자로 보내면 된다.

한편 굿네이버스 USA는 캘리포니아에 미주 본부를 두고 있으며 35개 저개발 국가에서 해외 구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의: info@goodneighbors.us, 877-499-9898,

김동욱 기자

의 바이러스 감염은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프랜시스 쉐 목사, "코로나를 통해 기독교인 깨우시는 하나님"



프랜시스 쉐 목사, ©PULSE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코너스톤 교회의 설립자인 프랜시스 쉐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약들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고 권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홍콩에 거주 중인 쉐 목사가 "큐세션

(Q Session)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깨우기 위해 이 위기를 이용하심을 믿는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쉐 목사를 비롯한 존 맥아더, 새뮤얼 로드리게스, 팀 켈러 목사와 같은 유명 복음주의 지

도자들은 큐 세션을 통해 전염병, 교회 제한 조치, 그리고 종교 자유에 대한 문제들을 기독교인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왔다.

현재 홍콩에 거주 중인 쉐 목사는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때를 사랑한다. 모든 진정한 신자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강제로 행동할 때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마치 무언가를 위해 훈련을 거듭하며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를 보는 것과 같다.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사람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던 때로 나는 가겠다고들 한다"면서 그러나 "당신은 놓치고 있

다.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놓쳐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 이전과 같이 교회가 모임을 할 수 있는 자유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가진 교회들이 중국과 같은 박해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쉐 목사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단지 교회를 약화시켰을 뿐이다"면서 "나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 동시에 나는 교회가 어떻게 변창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변창하는 교회는 실제로 성경의 박해받는 교회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유를 잃는 것이 두려워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헌신적이고 진지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순수한 교회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쉐 목사는 하나님은 교회에게 전염병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며 당신과 친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는 이 시간을 이용하라고 말하겠다. 이 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며 "이런 시기에 재무장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고 권면했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 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 변호사 경력 2009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문화재단 이사도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LA카운티, 폐쇄명령 거부한 교회에 주차장 퇴거 통보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가 존 맥아더 (John MacArthur)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가 주차장으로 임대한 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통보했다고 지난달 31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LA카운티 공공사업부는 지난달 28일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로 공문을 보내 교회 주차장의 상당 부분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오는 10월 1일부터 주차장 부지의 땅에서 나가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 교회는 지난 1975년부터 이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이에 대해 교회의 변호를 맡고 있는 토마스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의 제나 엘리스(Jenna Ellis) 변호인은 "LA카운티

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현장 예배 금지 조치에 맞서 교회 폐쇄를 거부한 방침에 대해 보복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스 변호인은 "LA카운티는 단순히 크레이스커뮤니티 교회가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보건 명령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보복하고 있다"면서 "미국에는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 체계가 있고, 그레이스커뮤니티 교회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독재의 모든 변덕에 굴하지 않으면 정부가 당신을 쫓을 것"이라며 "교회는 임대 계약을 45년 동안 평화롭게 유지해왔다. 카운티가 교회의 주차장 퇴거



존 맥아더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를 시도하는 유일한 이유는 존 맥아더 목사가 그들의 위험적인 권력 장악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괴롭힘, 학대, 비양심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그레이스커뮤니티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교회를 폐쇄하라는 주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58개 카운티 중 30개 이상을 폐쇄한다는 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그레이스커뮤니티 교회는

두번째 예배당 폐쇄 명령을 내린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맥아더 목사와 교회는 주 정부 관리들이 종교적 자유를 방해하고, 코로나 유행병 속에서 선택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상급법원에 접수됐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 자비에 베세라 법무장관, 에릭 가세티 LA 시장 등 관계자들을 피고인으로 지목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첼 베클로프(Mitchell Beckloff)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달 25일 LA시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판사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접근 명령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유진 기자

팬데믹기간 당신의 교회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려는 6가지 이유



©Pixabay

이 글은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글이다. 우리 팀과 소통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내 평생 목도하지 않았던 경향이다. 일부 목회자는 그러한 발표를 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목회직을 사임하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일부 목회자는 이중직 사역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임을 생각 중이다. 이같은 큰 낙담의 기간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코로나19와 관련 있기도 하지만 팬데믹은 이미 존재하는 추세를 악화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1.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으로 지쳐 있다.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니다. 그들은 일상을 그리워한다. 그들은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이전과 같은 상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인식한다.

2. 목회자들은 코로나 격리 후 교회를 두고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크게 낙담한다.

현장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기다려야 하나? 마스크를 써야 하나 또는 마스크는 쓰지 않아도 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지 아님 하지 않아도 되는지? 너무 많은 교인들이 문화적 사고 방식을 채택하고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 싸움으로 만들었다. 목회자들은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교인들의 불만을 매일 다루고 있다.

3. 목회자들은 교인 수 감소와 출석 인원 감소로 낙담하고 있다.

분명히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약 4분의 1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들이 전혀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미 들었다.

4. 목회자들은 그들의 교회가 미래에 재정적으로 사역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제 재정적 미래는 흐릿하다. 교회는 그들이 해야 할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5. 목회자에 대한 비판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 한 목사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가 전염병 이전 시대보다 5배나 많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교인들은 걱정하고 있고 지쳐 있다. 그리고 그들의 불안에 대한 가장 편리한 표적은 그들의 목사다.

6. 목회자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가 소통하는 거의 모든 목회자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그들이 맡은 일의 분량에 놀라움을 표한다. 그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회중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디지털 채널까지 추가됐다. 예상대로 팬데믹 기간 동안 교인들 사이 목회적 돌봄 요구가 증가했다. 목회자들은 지쳐지고 비난 받고 학대 당하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임을 생각 중이다. 이미경 기자

소망 소사이어티 치매환자 가족 및 간병인 지원 모임, 화상으로 재개



소망 소사이어티 치매 환자 가족 및 간병인 지원 모임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한인 치매 환자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적 지원을 위한 치매 가족 지원 모임을 화상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플러튼과 애너하임 등 5곳에서 진행되었던 치매 환자 가족 지원 모임은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 됐다가 오는 9월 11(화)부터 온라인 화상 모임으로 재개된다.

모임은 가족 간병인들 상호간에 정신적인 지원, 치매에 관한 교육, 간병에 관한 유용한 정보 나눔, 심리적 치유 등으로 이뤄지며 매 회 1시간 가량 소요된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화상 모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리와 시간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 가족과 간병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치매환자 가족 및 간병인 지원 모임은 월 1회 진행되며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0:00시,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넷째 주 금요일 오후 3시 중 본인이 가능한 시간을 하루 택해 참여할 수 있다.

참석을 원할 경우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로 전화 562-977-4580로 연락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어려운 한인들 위해 써달라” 남가주 한인가정 10만 달러 쾌척

한인가정상담소, 시니어·저소득층·서류미비 한인들 의료지원 예정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우혁 이해정씨 부부가 지난 2일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인들을 위해 써 달라며 한인가정상담소에 10만 달러를 기탁했다.

이우혁씨는 “최근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힘들어 하시는 한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부부가 함께 뜻을 모았다”며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북

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한인가정상담소와 손잡고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해정씨는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몸이 불편해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니어, 저소득층, 서류미비 한인들을 위해 한인가정상담소가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



오른쪽부터 이우혁 이해정 씨 부부,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었 소장대행

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캐서린 었 소장대행은 “정부그랜트 체류신분이나 보험여부 등의 제약으로 서류미비자나 무보험자, 저소득층 한인들이 수혜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건강한 한인가정을 위해 마음을 써 주시는 한인 1세들 덕분에 신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새들백교회, 50만 오렌지 카운티 결식 인구에 식료품 제공

미국의 대형교회인 새들백 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남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결식 인구에게 식료품을 제공했다고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에폭타임즈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에서 팬데믹이 시작된 후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매달 50여만명의 결식인구가 발생하고 있다. 이 교회 자원봉사자들은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 240만 파운드(약 108만 kg) 가량의 식료품을 배포했다.

에일리 유어 새들백교회 소동 담당자는 “새들백교회는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 식료품을 제공해왔다”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배포를 확장했다. 모든 남캘리포니아 새들백 캠퍼스는 식료품을 배포하고 이 지역 가정들이 직면하고 있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돌보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새들백교회가 준비한 푸드박스. ©새들백교회 페이스북 캡처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평소보다 약 7배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다. 보통 한 달에 2천5백 개 가구를 봉사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약 5천 가구를 섬기고 있다. 지난 3월 9일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300 만 파운드(136만 kg) 분량의 식료품을 배포했다. LA 지역과 샌디에고에서 도움을 요청한 가구에도 식료품 배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미 전역의 교회들은 자선 활동을 강화했다. 텍사스 지역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끄는레이크 우드교회는 월드비전과 휴스턴 지역교회 및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부들이 재배한 1만2천 상자 분량의 신선한 식품을 결식 인구에게 배포했다.

이어 “릭 워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통받는 곳으로 발을 들여놓도록 부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고통당할 때 그것으로부터 피하는 대신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전했다.

새들백교회 유통 협력자인 ‘Second Harvest Food Bank’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지역 어린이 6명 중 1명이 기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취약 계층에는 고령자, 장애인, 노숙자가 포함되며 그 숫자는 45만명 이상이다.

이 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9월에도 애너하임, 코로나, 어바인 사우스,레이크 포레스트, 라구나 우

즈, 랜초 카피 스트라노, 산 클레멘테 지역에서 식료품 배포가 계속될 예정이다.

교회는 지역 사회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새들백교회는 8세 이상(8-12세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의 모든 사람이 자원봉사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한 시간 동안 식

료품을 배포하면 일주일 간 한 가정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레이크 포레스트 새들백교회 푸드 팬트리 담당자는 “지난 7월 1백만 파운드(45만 kg)가 넘는 분량의 식료품을 기부했다”면서 “현장에서 사역을 운영하려면 약 1백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했

다.

앞서 새들백교회 지역 캠퍼스 선교 책임자인 라나 먼시는 LA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11년간 오렌지 카운티에서 식료품 배포를 해왔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158개의 푸드 팬트리가 폐쇄됐다. 교회로서 정말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경 기자

‘젊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로 왔던지...
젊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목사(정신대 경매교수), 이종현목사(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교회), 신정민목사(복음전대 대표), 유권지목사(동일교회),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집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젊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원/영)과 속편 ‘빛은 그로 왔던지’ 없었다는 북한 김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철도들의 순교종교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기적같은 여정과,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율법이다.

* 체크오더: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www.marhlaw.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변호
변호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實力
실력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精誠
정성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별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언제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責任
책임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겨림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마동 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73

“앙카라가 변하면 터키가 돌아오리라- 청년 장기선교사 가정 파송”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지난 주일 필자의 교회에서는 선교 보고회 및 두 가정의 EM 장기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다. 한마디로 선교 부흥회였다. 팬더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된다 어렵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선교를 포기하는 현실 속에서 감사하게도 필자의 교회 교우들은 터키 시리아 난민 MIT 선교를 2주간, 터키와 파키스탄 HSM(유스 선교) 5주간, 샘물학교(선교사 자녀훈련) 2주간의 선교를 마치고 복귀하였고 주일예배 때 선교 간증으로 선교지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며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 터키 안의 시리아 난민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초대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선교를 간증하였다. 이슬람 가정은 자녀들이 많으므로 한 가정을 방문해도 자녀들과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이 모이면 20명 안팎의 아이들이 모였다. 그들에게 영어와 노래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 파키스탄 청소년 전도팀은 2주간 40명을 영접시키는 열매를 맺었다. 한 팀이 2명 내지 3명이므로 이 적은 수가 이루어 낸 열매는 정말 놀라운 결과였다. 이렇게 열매가 팬더믹으로 다 막혀 있는 듯한 시기에도 영혼들이 복음에 열려 있다는 것을 교회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필자의 교회는 늘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각자의 선교지를 찾아 선교단체 안에서의 다른 지체들과 한 팀을 이루어 열방으로 향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 이런 기쁨 가운데서 더 큰 감사의 시간이 있었다.

망하면서 초대 대통령 아타투르크가 삼천년도 성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전격 수도를 옮겼다. 5백만 인구, 앙카라 성곽에 올라 온통 빨간 지붕으로 덮여 있는 앙카라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적도 있었다.

아나톨리안 박물관에 가서 온통 우상의 조각으로 채워져 있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한 20년 사도바울의 발자취가 있었고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 교회들의 복음의 자취가 실개천 같이 400년 세월을 흐르던 그 땅, 아! 이 앙카라가 변하면 터키가 변하고 터키가 변하면 모든 아랍의 나라들이 변할 수 있다는 영적 깨달음을 가졌던 필자가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땅에 우리 교회의 영어권 청년 가정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이 받은 비전은 앙카라에 많은 대학가들 속에서 젊은 차세대 제자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인터내셔널 교회를 회복하고 앙카라에 물려준 열방의 지식층 청년들과 함께 온 열방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날을 향해 그들은 가는 것이다. 온 교회가 그들의 기도제목을 올려 드리며 눈물로 파송기도를 올렸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하니.”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비전을 우리는 반드시 이를 것이다. 영어권의 한인 청년들과 일본인 청년 그리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단기 청년팀들이 이제 앙카라로 전면 포진할 것이다.

앙카라는 터키의 심장이다. 동남으로는 말라티야, 디야르바크르 서남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의 이즈밀과 안탈리아 등 순교의 피가 흘렀던 그 중심부에 있다. 지금 그 앙카라를 향해 하나님의 군대가 조용히 진군하고 있다.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8) 한계극복

나이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도전을 통한 삶의 변화를 꾀하려면 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탓하며 주저앉고 포기해 버립니다. 나이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육체적 정신적 기능저하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다듬어 가는 멋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치열하게 경쟁할 때였습니다. 도리스 해덕(Doris Haddock)이라는 할머니가 등장해서 미국 전 시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90세의 할머니 도리스 해덕이 ‘선거자금 개혁’을 외치며 단신으로 걸어서 대륙 횡단을 마쳤습니다.

뉴햄프셔 주의 작은 시골에서 조용히 노후를 즐기던 이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와 영웅이 된 것은 ‘선거자금 개혁’을 주장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미대륙을 걸어서 횡단했습니다. 1월 초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출발하여 3000마일(4800km)을 도보로 걸어 10월 말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매일 10마일 이상을 걸으며 노익장을 과시한 것입니다.

도리스 해덕 할머니는 대륙횡단 기간 내내 ‘선거자금개혁 (Campaign Finance Reform)’이란 글자가 쓰인 깃발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할머니가 지나는 길가에는 주민들이 몰려 나와 응원을 하며 행진에 동참 했습니다. 동네의사들은 할머니의 건강을 체크했고, 주민들은 기꺼이 침식을 제공했습니다.

도리스 해덕은 워싱턴 DC 입성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 2000여명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돈을 받아 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경찰관이 피의자로 부터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셔도 문제가 되는데 정치인들이 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받아서야 국사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역설했습니다.

90세의 할머니 도리스 해덕의 목소리를 통해서 깨갠 선거자금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90세의 고령에 몇 가지 질병도 있었지만 대륙횡단을 결단하고 실행했습니다. 정치발전과 사회정화를 위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낸 것도 대륙을 횡단한 것도 매우 멋진 도전입니다. 90세 고령의 할머니가 실천한 근사한 도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 멋진 도전을 꿈꾸세요!!

필자는 문학을 좋아합니다. 특히 시와 소설(단편)을 하루에 1편 이상 찾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99세에 첫 시집을 낸 시바타 도요라는 시인입니다. 시바타 도요의 시를 좋아합니다. 더 좋은 것은 90세가 지나서 시작을 연습하고 99세에 시집을 낸 도전정신입니다.

부끄럽게도 일본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 교제했던 기독교 군인들 몇 사람, 그

리고 존경하는 크리스천 문인들과 신앙 지도자 몇 사람, 제가 좋아하는 일본 사람은 10손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바타 도요 시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그녀의 따뜻한 시를 참 좋아합니다. 쉽고 평범해 보이는 그녀의 시에는 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시바타 도요는 어릴 때 가세가 기울어 힘들게 성장했습니다. 주방장을 남편으로 만나 삶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별 한 후 시인인 아들의 권유로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99세가 되던 2009년 10월에 자신의 장례식 비용으로 준비해 두었던 100만엔으로 첫 시집을 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유머 감각이 담겨 있는 이 시집은 158만부가 팔립니다. 시집이 만부만 팔려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일본에서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녀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 100세에 자신의 백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두 번째 작품 “100세”를 출간해 독자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열정, 그 도전 그리고 그 시성이 부럽습니다. 101세에 노환으로 별세할 때까지 시인의 작업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시집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

시인 시바타 도요와 도리스 해덕의 공통점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도전정신입니다.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뤄낸 그들의 멋진 성취와 그들이 누리는 행복에 박수를 보냅니다. 90세가 넘는 그들은 행복을 가꾸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 나이에 굴하지 마십시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십시오. 황혼을 빛나게 할 아름다운 행복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희,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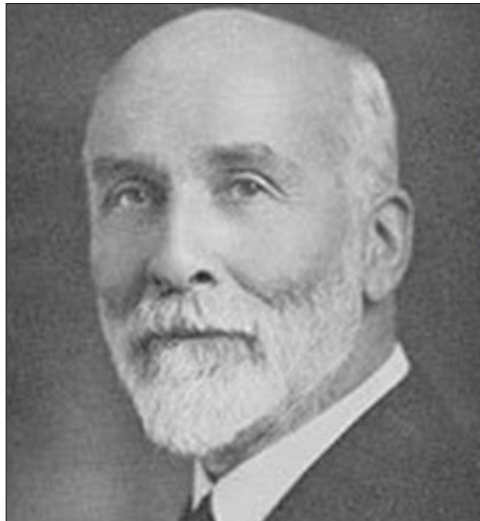
사랑과 성금!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성금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사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코어와 빈곤 인종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조나단 고포스 Jonathan Goforth 1859-1936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18) 만주와 중국의 부흥운동

1904년 웨일스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은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들이 섬기는 나라와 사역지에도 같은 부흥을 주시도록 사모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호주로, 인도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의 부흥의 현장을 직접 와서 목격했던 조나단 고포스 선교사를 통해 만주와 중국으로 번져 조종했던 중국교회가 역사상 주목할 만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이번에는 조나단 고포스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소개하고 싶다.

조나단 고포스(Jonathan Goforth, 1859-1936)와 한국 부흥 현장 방문

조나단 고포스는 D.L.Moody 가 이끌었던 대학복음화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사역을 준비하던 중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읽고 중국 선교에 헌신한다. 1886년 토론토대학교 나스 칼리지 학생들이 갖 결혼한 고포스와 그의 아내 로잘린을 중국에 파송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 당시 토론토대학은 제임스 게이와 로버트 하디도 한국에 파송했듯 선교의 영이 충만했었다.

고포스 부부는 중국에 들어와 하나님께 정직한다. 그는 미국의 부흥운동가인 찰스 피니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읽고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했다.

1900년까지 중국에는 아직 주목할 만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1900년에는 중국에서 비윤리적인 유럽 사업가들의 학대에 반발하여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 많은 외국인들이 추방당하고 189명의 개신교 선교사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수천 명의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되었는데 고포스 부부는 이 기간에 피신했다가 1901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다. 의화단 사건 이후 많은 중국인들은 기독교를 미개발 상태를 해결하는 열쇠로 보았고 1900년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들이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중국으로 돌아온 고포스는 불붙지 못한 자신의 영적 상태와 선교현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고 웨일즈의 부

흥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자 웨일즈의 부흥에 관한 기록들과 찰스 피니의 글을 읽으면서 부흥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그런 가운데 1907년에는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다. 마침 하나님을 방문 중이던 캐나다 장로교 해외선교회 서기였던 로버트 맥케이기는 고포스에게 자기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부흥현장을 살펴보고자 제안함으로써 함께 한국을 방문해 깊은 감명과 도전을 받게 된다.

수천 명의 한국인 남녀가 성령의 불을 받아 가슴이 뜨겁게 불타고 있었고, 예배 장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으며, 사람들은 다니는 곳마다 간증하며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었다. 어린 소년들도 어른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라고 간청은 모습들도 목격했다.

그들은 평양에 부흥이 임하기 전에 평양 주재 선교사들이 4개월 이상 매일 모여 부흥을 사모하며 정오기도회를 가졌던 사실과, 또 한국 성도들이 부흥을 사모하여 4개월 이상 동안 매일 새벽기도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주에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중국으로 돌아온 조나단 고포스는 중국에도 이러한 부흥을 보내주시도록 본격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만주 부흥은 이렇게 하여 시동이 걸리게 된다.

그는 만주와 중국 동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자 선교사들과 중국인들이 그들도 한국 같은 부흥을 갈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고포스에게 와서 특별집회를 열어달라고 간청했다.

1908년 2월에 고포드는 만주의 수도인 심양에 초청받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심양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로 준비한다는 조건하에 집회를 수락했었는데 도착해보니 그동안 기도회를 전혀 갖지 않았고 그 지역에서 지도자로 일했던 선교사는 집회

에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3천 명의 성도들이 심양 집회를 위해 특별 중보기도회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한국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둘째 날 집회에 회개의 영을 충만히 보내셨고, 넷째 날에는 죄를 통회하면서 서로 찾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지막 날에는 의화단 사건 전후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해에 하나님을 떠났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고포드가 광닝에 초청받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곳 사람들은 대표기도를 인도할 때 외에는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소리 내어 자백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평소 서서 기도해왔는데 온 회중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장로가 다른 장로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다. 곧이어 한 목사가 일어나더니 자신의 간음죄와 뇌물 수수죄를 고백하고 뇌물로 받았던 임고 있던 털 외투를 찢어버렸다.

그 목사가 계속 회개하며 기도하자 어린 아이들까지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불신자들도 구경 왔다가 그들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

어느 교회 평신도 지도자는 집회에 오지 못했으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시자 교회 건축 시 자신이 어떻게 건축 자재들을 훔쳤는지 자백서를 작성했고 이를 고백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 교인들 앞에서 울면서 죄를 고백하였다.

신민회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기 7년 전 그들의 마을에서 기독교인 54명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250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복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자들을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고 250명을 공개적으로 용서한 다음 그 명단을 찢어버리기도 했다.

이와 같은 회개와 죄의 공개적 고백과 용서와 화해가 고포드가 방문해 집회를 가졌던 도시마다 일어났다. 산서성의 태원에서도, 서주에서도, 고포드가 살고 있던 승덕에서도, 신앙초우에서도, 허난성의 개봉시에서도, 광주에서는 그리스도인이 2천 명이었는데 나올 만에 8천 명으로 증가했고, 초우선에서도 가는 곳마다 교회와 학교들에서 죄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했고 죄를 자백하느라 수업이 중단되기가 일수였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 울면서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서로 잘못을 고백하며 화해하고 변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들도 일어났고 성도들의 숫자가 수천 명씩 불어나는 일들이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다.

조나단 고포스가 중국에서 일어난 부흥에 관해 기록한 책 '나의 신으로(By My Spirit)'의 끝 부분에서 그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아주 강력하게 진술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께서는 단 하루라도 자신의 역사를 지연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지 않을 때면 언제나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이 부족한 탓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오순절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는 성령께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있는가?"라고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기도, 둘째 성경으로 돌아가기,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910년 이후에 들어와서 비로소 중국인 부흥 운동가들이 세워져 어

여지게 된다.

1910년부터 '목회를 위한 중국학 생자선선교운동'의 전임 사역자로 일했던 덩 리메이(Ding Limei)를 통해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목회의 길로 들어섰고, 1910-1918년에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사 람들은 덩 리메이를 '중국의 무디'라고 부르기도 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지방을 돌면서 전도집회를 이끌었던 왕 밉다오(Wang Mingdao), 1930년대부터 토착적 중국 교파인 'Little Flock' 모임을 이끌면서 많은 책도 썼고 많은 추종자를 이끌었던 워치만 니(Watchman Nee), 부흥 설교가인 존 성(John Sung), 앤드류 기(Andrew Gih) 등에 의해 중국의 부흥운동이 계속 이어졌다.

1949년 공산정권이 들어서 모든 종교활동을 금지시킬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70만이었다고 한다.

기독교를 소멸시키려 했던 문화혁명(1966년부터) 기간을 통과했지만 현재는 1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있다고 한다.

최근에 시진핑 정권에 의해 문화혁명 이후 최고 수위의 기독교 박해가 진행 중인데, 중국 기독교가 이 위기 동안 더욱 순결해지고 강해져서 모슬렘 국가들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들로 준비되도록 기도하자.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순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주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eu.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팀 켈러, “기독교 자녀 교육, 주일학교만으론 턱없이 부족”

뉴욕 리더머 장로교회 창립자인 팀 켈러(Tim Keller)목사가 “현대의 세속문화가 기독교인을 전도하기 위해 행진을 벌이고 있으며, 이제 주일학교, 교회 예배와 청소년 그룹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올해 취임감 진단을 받은 그는 지난 2일 큐세션(Q Session)에 참석해 큐 아이디어 창립자인 가베 라이온스(Gabe Lyons)와 인터뷰를 가졌다.

Q세션 토론에서 그는 미국의 세속적 문화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때에 이르렀다”고 경고하며, 전통 개신교의 교리가 기독교인 자녀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폭격을 받는 세상 속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팀 켈러 목사는 현대 세속 문화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전도돼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세속 문화가 단순히 기독교로부터의 해방을 기초로 한 ‘포스트 기독교 문화(Post-Christian culture)’가 아닌, 유사한 기독교적 가치를 지녔다고 분석하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없는 기독교인들을 원하며 변화시키려 한다. (...) 그들은 우리를 세속주의자로 바꾸려고 노력 중이며 우리의 개종은 그들에게 지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켈러는 현대 세속주의자들의 많은 가르침이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그들의 주관적 이야기들이 기독교 청소년들 안에 급격히 밀려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전통 개신교 교리문답” 차원을 넘어선 “혁신적인 보호(innovative protections)”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켈러 목사는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듣는 것에 대해 그다지 많은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이런 식의 교리 문답에 이르게 한다. ‘자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아이들을 쫓아간다”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교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기독교 자녀들로 만들기 위한 접근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단지 아이들을 교회와 주일학교, 청소년 모임에 데려간다고 해도, 그들이 (세상으로부터)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켈러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리



팀 켈러 목사(뉴욕 리더머장로교회 설립, CTC 이사장)

문답은 성서적 교리를 단지 밖에 내다 놓은 것에 불과하다. 당신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겠지만 내가 말한 내러티브(narrative: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실제로는 연결시키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세속 문화로부터 “아이들을 예방 접종을 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켈러는 “우리는 아이들이 문화를 분석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아이들

에게 300-400년 전에 공식화된 추상적 교리를 던져주고 있다”면서 “교리는 같지만, 그것을 제시하는 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속 문화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할 수 없다.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년 10월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은 65%로 10년 전에 비해 12% 감소한 반면, 무신론자 등 종교와 무관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26%로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젊은 청년층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2016년 공공종교연구소(PRR)는 미국인들이 종교를 떠나는 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란 사람들의 이탈”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연구는 오늘날 미국의 젊은이들은 노년층보다 종교적 정체성 없이 자라날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유진 기자

세계 최대 음란물 회사 해체 위한 서명, 192개국 200만명



©Pxabay

세계 최대 음란물 호스팅 사이트 포르노허브(PornHub)가 아동학대 및 성매매 콘텐츠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2월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단체인 엑소더스 크라이(ExodusCry)가 이 청원을 주도해, 현재까지 192개국, 202만 687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청원서에는 해당 웹사이트가 강간, 납치, 성폭행, 성매매와 같은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이 같은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서를 계기로 3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 벤 새스는 윌리

엄 바 법무장관에게 해당 웹사이트와 모회사인 마인드긱(MindGeek)에 대한 연방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캐나다 국회의원들도 쥘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엑소더스 크라이의 라일라 미켈워트(Laila Mickelwait) 이사는 성명에서 해당 사이트가 매년 약 420억 건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포르노허브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메일 주소 뿐”이라며 “정부가 발급한 아이디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켈워트는 해당 사이트가 “자신들이 올려서 수익을 내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수백만 명의 나이 아동의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이트는 (여성) 착취에 맞춰져 있으며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실제 강간, 인신매매, 학대, 착취 등의 영상으로 들끓고 있다. 포르노 허브는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성 착취 증거물의 공개 모음집”이라고 강하게 비

판했다.

그녀는 올해 초 포르노 호스팅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기사를 작성하며 캠페인을 시작, 대중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올해 초 영국 BBC는 흥기로 위협한 피해들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사례를 보도했다. 당시 그녀는 14세에 불과했으나, 범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녹화해 영상을 포르노허브에 업로드까지 했다.

엑소더스 측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에서 1년간 행방불명된 15세 소녀가 성폭행을 당한 동영상이 포르노허브에서만 58개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온라인 지불 시스템 회사인 페이팔(PayPal)은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 및 아이들이 등장한 콘텐츠를 게시한 포르노허브에 대해서 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김유진 기자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교회, 미래 리더십에 투자하고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해야”

영국의 한 목회자가 “많은 교회의 사역에서 ‘극적인 변화’(drastic changes)가 일어났으며 많은 교회가 2020년에 구사일생으로 가까스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영국 복음주의 독립교회 협회인 FIEC(Fellowship of Independent Evangelical Churches)의 스코틀랜드·북잉글랜드 이사인 앤디 헌터(Andy Hunter) 목사는 이 단체 웹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질문이 있다. 코로나19가 처음 두려워했던 것처럼 파괴적이었거나 심각한 제한조치가 시행됐다면 교회는 살아남았을까?”라며 “그렇지 않다면 다음 차례의 폐쇄를 피하기 위해 어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헌터 목사는 “교회가 미래의 리더십에 투자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물론 쉬운 선택이나 개선사항은 없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은 2020년부터는 취할 교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헌터 목사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폐쇄가 시행되기 전 건물을 임대한 작은 교회들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스코틀랜드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함께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

이 토론에 참석한 일부 목회자들은 온라인 교회 활동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어떤 목회자는 출석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교회 헌금이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헌신된 성도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Pixabay

헌터 목사는 “다른 교인들과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진 교인들은 가장 잘 견뎌왔으며 약한 유대 관계를 가진 교인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서 “온라인 예배 시청 급증 현상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한 교회 지도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교회 웹사이트 방문자 숫자가 매주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헌터 목사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을 통해 교회가 지역 사회와 함께 봉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 복지 활동에 참여해 자원 봉사를 하면서 신앙을 갖게 됐다. 사람들은 또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온라인 과정에 참여하면서 복음에 대한 새롭게 알아가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기관과 정치인들은 스코틀랜드 공동체를 위한 교회의 사역과 기도를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했다.

미 흑인 기독교 방송 진행자, “BLM은 반기독교, 마술 숭배해”



최근인 8월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BLM 시위 모습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미국의 흑인 기독교 방송 진행자가 Black Lives Matter(이하BLM) 운동이 마술(witchcraft)과 연관돼 있으며, 이 단체와 연합한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일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기독교 팟캐스트인 ‘아메리카 패밀리 라디오’의 진행자인 에이브러햄 해밀턴 3세(Abraham Hamilton III)는 지난달 19일 방송에서 BLM의 실체는 ‘사회정의 옹호 단체’가 아닌 ‘종교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가족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 공공정책 분석가로 활동 중인 해밀턴은 BLM 운동을 “마르크스주의이자, 반 기독교이며, 반 가족, [그리고] 반인륜 단체”라고 비판했다.

해밀턴은 이 운동의 공동 창시자 중 한 명인 패트리스 컬러스(Patrisse Cullors)가 자신을 “혼련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묘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컬러스가 영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 대목을 읽었다.

영상에서 컬러스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부르는 영혼들과 매우 친밀해졌다”며 “그들 각각은 다른 존재와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어 “나는 와키샤와 함께 많이 웃는데, 그녀의 몸에서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컬러스가 언급한 여성은 지난 2016년 LA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흑인 여성 와키샤 윌슨(Wakiesha Wilson)을 가리킨다.

해밀턴은 이 대화 속에서 BLM 지도자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소환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고, 이 같은 행위를 통해

단체가 지향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밀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소환하는 지도자들이 “요루바족(Yoruba)”의 점술인 “이파(Ifa)”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죽은 영혼들을 소환하고 있다. 이 종교 행위의 기준 중 하나는 조상숭배”이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마술사(Witchcraft)라 부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BLM 공동 창시자인 멜리나 압둘라(Melina Abdulah)는 영상에서 “이 운동이 인종적, 사회적 정의 운동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거의 1년이 걸렸다”며 “우리는 말 그대로 앞질러진 피 위에서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은 영적인 운동”이라고 언급했다.

해밀턴은 BLM 운동에서 가장 흔한 구호 중 하나인 “그녀의 이름을 말하라(Say her name)”는 문장도 “죽은 영혼들을 부르는 것”이며 BLM 지도자들은 “그들이 말한 사람들의 이름이 조상의 신이 되었다고 정말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해밀턴은 BLM의 영적 관행을 비판하며 예배소서 6장 12절을 인용, “악의 영들(spiritual wickedness)”이며, 이러한 요술사나 죽은 자의 영을 부르는 자들을 신명기 18장이 말한 “주님께 가증한 자(de-testable to the Lord)”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BLM운동을 지지하는 일부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협력관계 단절을 촉구했다.

김유진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암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인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저세대에)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7시)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2세대목회, 이민가정을 위한, 선교영광을 증언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7시)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수요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셋에델미엔(소매)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신도모이기 만민부 지역 유망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월, 화) 오후 8:00
한글학교(주말)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삶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 화)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 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종교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중국 정부, 올해 들어 교회 십자가 900개 철거



안후이 성에 위치한 십자가 철거 전 교회(위)와 십자가 철거 후(아래) 교회 모습. ©비터윈터

중국 전역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900여 개 이상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가 정부에 의해 철거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종교 자유 문제를 다루는 '비터 윈터 (Bitter Winter)'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동부 안후이(Anhui) 성에서만 250개 이상의 교회 십자가가 제거됐다. 또한 중국 전역에서는 상반기에만 총 656개의 십자가가 내려졌다.

비터 윈터에 따르면, 한산(Hanshan)주에서는 철거를 담당한 연합전선부 관리인이 찾아와 교회에 "정부 건물보다 높은 십자가는 국가 기관을 무색하게 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보한 교인에 따르면, "회사(enterprises)"처럼 보이는 교회만이 합법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기독교를 "중국화(sinicize)"하기 위하여 교회가 사양의 십자가를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신자는 또 정부 관리들이 교회에 "십자가 철거를 반대하는 것은 곧 정부에 항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철거를 막으려 한 기독교인들은 당국에 의해 수 차례에 걸쳐 부상을 당하거나 구금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당투(Dangtu) 주에서는 정부가 대형 기종기 3대를 동원해 링원산 기독교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에 수백 명의 경찰관이 동원돼 보행자 및 차량을 통제하고, 교회 안으로 난입한 뒤 쇠사슬과 자물쇠를 끊고 철거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막아 섰던 고령의 교인은 손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기독교 인권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의 설립자 밥 푸(Bob Fu) 목사는 중국 정부의 십자가 제거 운동은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는 "중국 내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을 막으려는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종교 및 종교적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와 인권단체들, 그리고 미 국무부 등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 자유위원회(USCIRF)가 올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십자가를 철거할 뿐 아니라,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종교 예배 참석을 금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를 시진핑 주석의 사진으로 대체하고 있다.

러셀 무어 윤리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중국의 인권 위협 문제를 다룬 웹 세미나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권력과 부로 인해 전 세계가 "공격과 위협을 받아 침묵할 것(bullied and intimidated into silence)"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있다(counting on)"고 말했다.

무어 위원장은 또 중국 정부가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고 싶어 하며, 이를 위해 기독교인을 비롯한, 국가보다 더 높은 존재를 믿는 소수 종교인들을 박해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최고의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종교의 경전과 성경까지도 고쳐 쓰려고 시도하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20년 미국 오픈도어즈가 선정한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중 23위에 올라 있으며, 미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별 관심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영국의 교회. ©Unsplash

영국인, 교회 재개 후에도 온라인 참석률 증가세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영국인 4명 중 1명은 디지털 방식으로 신앙 활동에 참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5일 보도했다.

영국 더럼 대학교(Durham University) 디지털 신학 센터는 여론조사업체인 사반타 콤레스(Savanta ComRes)와의 공동 연구에서 영국인들의 신앙 활동 참여도에 대해 봉쇄 조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비교 분석했다.

실제로 연구원들은 코로나 대유행 중에 온라인 종교 활동 참여도는 400만 명에서 19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체 영국인 6665만명 중 28%에 해당된다.

봉쇄 조치가 이어지던 지난 7월, 응답자 중 4분의 1 이상(26%)은 "(한 달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8월 조사에서는 교회가 다시 재개방을 했음에도, 10명 중 3명(29%)으로 오히려 온라인 예배 참여가 더 증가했다.

또한 18~34세 청년의 절반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기도나 연합 예배 등 온라인 신앙 관련 활동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 자료는 'Z세대(1997년 이후 출생)'와 '밀레니얼즈 세대(1981년생부터 1996년 출생)'의 신앙 관련 활동과 영성이 다른 세대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두 세대가) 기도와 예배 활동에 높은 참여를 보일 뿐만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이것은 '규격화된 신앙(institutional faith)'에 대한 참여도를 나타내기 보다는, Z세대들 사이에 '폭넓은 영성(wider spirituality)'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피터 필립스(Peter Phillips) 더럼대 디지털신학센터 소장은 "영국 대중들이 온라인이나 복합적인(hybrid) 형태의 종교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종교 단체들은 팬데믹 위기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신앙활동을 이동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유진 기자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JCOCC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찬양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1부)오전 9: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EM예배 (2부)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한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광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블리제들 MP제들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성경회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588 Altiss Ave., Monterey Park, CA 91753
195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6 한인 청년부 주일 오후 5:30 / 토 오전 6:00
T. (818)9363-5887 T. (626) 937-3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종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쁘고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이동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시름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강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1부 오전 9:30 / 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온누리교회, 교단에 NCKK 탈퇴 요청키로... 파장 예상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가 그들이 속한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총무 이홍정 목사) 탈퇴를 교단에 요청하기로 했다. 교단 내 대표적인 대형교회의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온누리교회는 얼마 전 당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근 이 같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NCKK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NCKK의 활동이 교단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예장 통합은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교회의 이런 입장은 시찰회를 거쳐 노회에 전달될 예정이어서 노회 결의 절차

를 거쳐야 총회에 상정될 수 있다. 교단 제 105회 총회 전 노회가 긴급하게 모임을 갖지 않는 이상, 온누리교회의 이 안건은 사실상 이번 총회에선 다루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에는 이미 다른 노회의 비슷한 현의안이 제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NCKK 정평위의 성명 등 때문이다.

교단 한 관계자는 “교단 안에서 온누리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사실 교회의 입장이 이번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누리교회가 갖는 교단 안팎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총대들이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재수감' 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전체국가로 전략”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스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3시 30분경 경찰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140일 만이다.

전 목사는 구치소로 향하기 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 국가로 전략한 것 같다”며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 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이 건 이미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언론에서 마치 방역을 제거 조성했다. 이렇게 몰고가니까 제가 또 재구속되지 않나. 담당자인 성북구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자진 폐쇄 다 했고, 10년치 명단 다 췌다”고 했다.

전 목사는 “그 중에서 처음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은 10년치 명단을 준 것 중에서 500명 가까이 연락이 안 되는 것은 10년

사이에 성도가 떨어졌다. 그 명단”이라며 “그것도 나중에 재수정해서 달라고 해서 다 췌다.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내가 방역을 방해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언론이 기정사실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몰고가서 결국 나를 오늘 재구속시키는 것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에 다시 저 이후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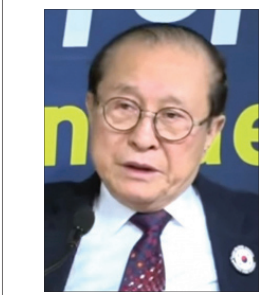
또 오는 “개천절(10월 3일)에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전 목사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지난달 16일에 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청을 7일 오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전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수(몰수)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약 2개월 만인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김진영 기자

코로나19 치료받던 신소걸 목사, 별세



신소걸 목사 ©유튜브 '너알아TV' 캡처

집회에 참여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1968년 TBC동양방송 코미디언으로 데뷔했으며 ‘웃으면 복이 와요’ ‘부부만만세’ 등의 방송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으며 서울 성내동 순복음우리교회에서 목회해 왔다.

김진영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철년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rn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세백예배(월-금) 오전 5:30

만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현대교회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철년예배 오후 1:30

주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세백예배 오전 6:00
대학철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철년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현대교회예배 오후 2:0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쉰데로 활로써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세백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에베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F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양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세백예배(월-토)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0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례예배 : 오후 7시
세백기도 : 오전 6:00(화-금)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수요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N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철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몰교회
풍성한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인부 오전 11:30
KM대학원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EM 예배 오후 1:30(철년 영어)
세백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에 오전 11:30(철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철년부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0년 9월 21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가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서론, 신론) Systematic Theology I	Elijah Kim
Tue	7:00 PM - 9:00 PM	교리, 목회서신 Catechesis, Pastoral letter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사무엘 상, 하 Samuel 1st and 2nd	Timothy In Song
Thu	7:00 PM - 9:00 PM	현대신학 3 Modern Theology 3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예배학 Christian Worship	Jong Yong Kim
Sat	7:00 PM - 9:00 PM	리포트, 논문 Rearch & Writing	Young Joon Ko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자제력(自制力)을 키우는 지혜

자제력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제란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제란 곧 절제(節制)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제를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를 절제라고 말합니다(갈 5:22-23).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절제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사랑의 최고봉은 절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절제에 있습니다. 절제는 기다림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고전 13:4)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오래 참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책임과 헌신을 무시하고 쾌락만 추구하는 사랑은 충동에 불과합니다.

절제는 바울의 설교 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행 24:25). 특별히 바울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절제”의 덕이 있는지 살필 것을 강조했습니다. “감독은 ... 절제하며”(딤후 3:2). 절제란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節制)란 정도(正導)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욕망을 알맞게 조절하여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란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도를 벗어나면 탈선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을 지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나중에는 탈선한 기차가 전복(顛覆)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절제란 집중력입니다. 절제란 건전한 목표를 위해 힘을 낭비하지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않고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끼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전 9:25)라고 말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란 힘을 아껴 정말 필요한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무모하게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꼭 필요한 데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힘이 있다고 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아껴야 합니다. 그 힘을 가장 소중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제력의 근본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靈長)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고 명하셨습니다. 다스림은 돌봄입니다. 다스림은 잘 키움입니다. 다스림은 보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세도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에 있습니다(막 10:45).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키우고, 보호하고, 그리고 섬기라고 명하신 것입

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의 탐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다스림의 위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탐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수치심의 고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길은 성령님을 힘입어 자제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키우는 길은 조금 더 건디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키우는 길은 즐거움을 유보하고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 자제력을 키우는 탁월한 훈련입니다. 자제력을 키우는 길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키우는 길은 욕심을 조금 떨어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키우는 길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키우는 길은 허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키우는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제력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이신 예수님을 향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막 15:32)라고 모욕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모든 모욕과 치욕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수하는 데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데 힘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시는 데 힘을 쓰셨습니다(히 12:2). 예수님의 자제력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계2:8)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강해 때 보았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십니다. 이 말은 마지막을 정하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부터의 성경입니다.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광야로 도망쳐서 지팡이 하나 밖에 없는 80세 노인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니 끝이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기적과 승리의 새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면서 항상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죽음을 경험할 때,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햇빛인데 진흙은 굳어지고 얼음은 녹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인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원망 불평하고 상태가 좋을 때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팬데믹 고난의 때에도 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밀어닥치면 내 힘과 열심을 다하던 사람도 모든 것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는 나를 배신하고 등을 보이는 사람이 생기는데, 실상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가 임할 것이고, 고난의 때에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등을 바라보면 ‘바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믿음이 라이트급인 성도에게 헤비급선수과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여 시험과 고난의 강도가 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실력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윈드서핑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파도를 더 즐기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미군은 세계 최고의 강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23:10)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목표는 고난 없애기가 아니라 이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십니다. 질병보다 불경기보다 크십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목표가 문제 상대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명 이루기, 죽도록 충성하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미루지 않고 선택하고 결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신학적 갈등-보수와 진보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한국교회 보수, 진보 간 논란의 심원(深淵)은 한국 보수신학의 종교 재판관 역할을 담당한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박형룡(朴亨龍)목사와 한국 교회 자유주의 신학의 기수라 할 수 있는 송인상(宋仁相)목사의 갈등이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갈등은 한국 장로교회를 신학 문제로 갈라놓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박형룡은 1928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산정현 교회를 거쳐 1930년부터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수로 있었고, 김재준도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교회가 경영하는 송인상(宋仁相)목사의 성경 선생으로 있었다. 김재준은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수인 남궁 혁을 통해 신학교와의 접근을 시도 하였으나 그가 보수주의 신학을 공공연히 비난함으로써 이 일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18년 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신학지남」(神學指南)은 그 때까지 선교사들이 주로 편집인으로 있었으나 남궁 혁 목사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인 최초의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수가 된 후에 편집인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글도 이 잡지에 실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던 중 김재준이 「신학지남」에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 연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 글이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성경의 축자영감설(逐字靈感說)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고루한 정통신학을 한국 교회에 주입시켰다고 공격함으로써 보수 일변도의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도전장을 냈다. 이는 박형룡과 김재준의 신학적 대립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박형룡은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약학 교수였으며, 후에 프린스턴이 자유주의 신학에 몰들었다고 통박하면서 보수신학을 표방하며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설립해 나간 메이첸(J.G.Machen)에게서 강한 영향을 받았고, 그의 신학의 굴레에 얽매어 신학적 사고에 더 이상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는 신학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화, 변

천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시대부터 전승해 내려오는 ‘사도적 정통의 정신학(正神學)’을 그대로 보수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따라서 성서는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성서무오설(聖書無謬說)을 확신하였으며,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책으로 일점 일획도 틀림이 없다는 축자영감설(逐字靈感說)을 굳게 믿는 근본주의(根本主義) 신학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첨병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였다.

이런 신학상의 차이는 박형룡과 김재준이라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로 연결되면서, 급기야는 교회 분열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박형룡은 김재준의 신학사상을 위협한 자유주의라 판단하고 더 이상 그의 글을 신학교 기관지인 「신학지남」에 실지 못하게 하면서 김재준에 대한 경계에 나섰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화해를 시도한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버지니아 유니온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역시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수가 된 남궁 혁(南宮 燮) 목사였다. 남궁 혁이 「신학지남」의 편집인으로 있을 때 김재준의 글을 실게 되었고, 이

는 남궁 혁이 박형룡의 눈에 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두 목사간의 갈등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지방색이다. 박형룡은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중심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보수적 신학 경향의 평안도 사람이고, 김재준은 자유자 유적 신학을 배경으로 한 캐나다 장로교회 구역 함경도 출신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두 목사는 평안도와 함경도라는 출신 지역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이 간격의 폭을 더 넓게 만든 것이다. 한국교회 안에 두고 두고 문제가 되는 지방색이 신학적 경향과 맞물리면서 비극을 향한 비탈길을 내닫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34년 23회 총회에서는 구약 창세기의 모세 저작을 부인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것은 서울 남대문교회 목사였던 김영주(金英珠)가 1934년경에 창세기의 모세 저작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강병주(姜炳周)목사가 총회에서 문제를 삼음으로써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총회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장 라부엘(S.L.Roberts 羅富悅), 동교(同校)교수 박형룡, 윤하영, 부위원, 염봉남 등 5인의 연구위원을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연구한 후 이듬해 총회에 보고하게 하였다. 위원회는 모세의 창세기

저작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파괴적 비평,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으로써 ‘성경을 경멸하여 여기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목사는 ‘신조 제1조에 위반하는 자이므로 우리 교회의 교역자 됨을 거절함이 가하다.’며 다음의 선언을 하였다.

“창세기가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론은 근대의 파괴적 성경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이론인 바 그들은 과연 창세기의 모세 저작을 부인하는데 머물지 않고, 오경 전부를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세시대로부터 여러 세기 후에 어떤 인물들이 기록한 위조문서로 돌립니다. 또 그들은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여러 책과 신약 여러 책을 후대인의 위조문서로 인정하며 그 기록의 내용에 신화와 고담과 미신과 허실과 각종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여냄으로써 성경 대부분의 파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위도 무시하며 능욕하는 사람이니 ... 장로교의 목사 됨을 거절함이 가하다.

한국 장로교회가 아직 성경의 고등비평을 수용할 수 없었음을 천명한 내용이었다. 김영주 목사가 총회의 뜻을 받아들여 자기의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고화질, 부동화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티셔츠, 주머니제작, 259-271, 259-272, 259-273, 259-274, 259-275, 259-276, 259-277, 259-278, 259-279, 259-280, 259-281, 259-282, 259-283, 259-284, 259-285, 259-286, 259-287, 259-288, 259-289, 259-290, 259-291, 259-292, 259-293, 259-294, 259-295, 259-296, 259-297, 259-298, 259-299, 259-300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의 소원

골로새서 1:18~29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8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중략)...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 교회는 사도바울에게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한 가정교회에 목회자로 파송을 받게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빌레몬이나 에바브라나 모두 성령이 충만했고, 그들은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영혼이 천국 들어갈 수 있기를 애간장 타는 소원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서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살았기에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 교회의 사명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화목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 와서 목자를 통하여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파 아버지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목자가 꼭 있어야 하는데, 그 목자가 에바브라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리정통하고 성령의 은사와 영력을 나타내면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며 양떼들로 모두가 진리 정통한 가운데 성령충만해집니다. 그 교회는 하늘 소망 가꾸는 교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어 놓고,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에게 매 맞고 망신과 행패와 십자가 형틀에 모진 고통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죽임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 이름을 불러 회개하고, 애용하고, 자복하면 그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성령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호적부인 생명

책에 이름을 올려 주시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으로 믿음을 결심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야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난 심령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무르익었을 때, 그 영혼을 거두어 천국으로 성령이 인도해 들이십니다.

2. 화목의 비밀

19절부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넘겨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해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의 모형이 설명하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한이 응어리져 있어서 "이놈, 나한테 이렇게 했어!"하는 인생은 아직도 하늘 소망을 얻기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이 손해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또한 상대방에게 잘못된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을 온전히 이루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복락이라는 영원하고 신성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찾아가 '전날에 우리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보니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많았더라. 그러니 내가 먼저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화목을 청한다.'라고 해 보세요. 그 사람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잘못하긴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부담을 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하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육신이 세상의 허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적으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당신과 나하고 풀려고 왔습니다. 당신이 내게 화가 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부담이 가도록 한 책임이 내게도 있었으니 제가 용서를 바랍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이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란 더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이 이뤄질 것입니다. 화목이 됩니다.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맺힌 원과 한을 풀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진 다음에 마귀 앞잡이가 되어 지옥길을 재촉하는 불행한 남은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나를 낮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3. 예수님의 소원

23-24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끔씩 흔들립니다. 상당히 소망적인 것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엄습해 오면 인생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동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고문과 죽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다"는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사도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확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란의 고통, 핍박, 고문, 위협, 행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과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을 받는 성화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인생설계도 하고, 그 설계대로 노력도 해보고, 실패도 해 보았지만,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나를 비워서 예수님

을 내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도가 사는 목적이고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믿음 받고 더 잘 섬기는 중심이 간절하면, 예수님께서 쓰시면서 총만하신 것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목숨 불드시는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는 목적으로 내 생애를 복음의 제물 되기를 소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제 가슴을 눈물로 저미게 합니다. 내가 이제 양떼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어떤 고난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장 목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진리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보잘 것 없는 손으로 기도해서 온갖 병자들,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체험을 보아셨기 때문에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안 믿는다고 해도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애가 탐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으로 총만하게 채워 넣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고, 더 잘 섬기는 중심이 간절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서 얼마든지 뒷바라지 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고 소원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 30분 / 동부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주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폰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 탈모
- 치질
- 갑상선
- 당뇨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뻣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매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고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림
- 얼굴리 통증(열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신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핫플러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원산 캡슐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 빠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토 10시~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돕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에의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신간 서평] 국가가 하나님을 잇을 때

『나치 독일』이 오늘날 한국과 교회에 주는 교훈

미국의 목회자인 어윈 W. 루처(Erwin W. Lutzer) 목사가 쓴 「국가가 하나님을 잇을 때-나치 독일로부터 배우는 일곱 가지 교훈」(CLC)이 한국어로 번역돼 최근 출판됐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세워진 미국이 오늘날 어떻게 나치의 독일을 닮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유가 얼마나 잠식당하고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그 자유의 '수호자'인 교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 나치 독일 당시 그곳의 많은 교회들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독일"이라는 거짓 약속에 미혹당했음을 일깨우고 있다.

"내가 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은 정부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충성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라고 설득하고자 한다." 저자의 말이다. 즉 "교회는 항상 두 신과 두 십자가 사이에 놓여"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거짓 구원을 약속하는 수많은 아주 작은 신들과 그들이 요구하는 십자가들"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 거짓 신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구현된다. 그들은 대부분 '시저'의 복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들과 결국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분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그는 "나치 독일 교회의 경험은 그리스도는 항상 홀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며 "나치즘이나 마르크스주의 또는 세속주의든 상관 없이 국가는 항상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 그리고 국가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교회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

해 더 많은 법이 제정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것은 표면상 자유 또는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인가'라는 의제로 진행된다"면서 "그러므로 전체주의 국가는 도덕, 진보 및 자유라는 언어로 포장되어 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처럼 노예 제도는 자유로, 억압은 평등과 공정성의 추구로 정의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나치 시대의 독일에서만 그치지 않는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미국 교회가 현재의 투쟁을 위해 나치 시대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유기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는 "세속주의의 힘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는 전체주의 국가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 땅이 망하는 건, 세상 아닌 타락한 교회들 때문"

마찬가지로 이것은 미국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영윤 역자가 이 책을 한국어로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치 독일의 교훈은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으로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일했던 역자는 2012년 미국 공항에서 우연히 이 책을 접어 들었고, 지난해 다시 읽으며 이 책이 오늘날 한국인과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2012년에는 미국을 보았고, 다시 이 책을 읽었던 작년 늦가을에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시대 흐름의 이면을 보고, 나아가 그 이면의 이면에 웅크린

음산한 존재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존재와 함께 서 있는 무리에 분노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 역시 잡자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역자가 이 책의 서문에 밝혀놓은 글이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면에 웅크린 '음산한 존재'를 직시하는 것이며, 또한 그 존재와 함께 서 있는 무리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게 역자의 목소리다. 그런 뒤 그 무리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치 시대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빠졌던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자는 이 책을 통해 웅변한다.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설교하고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성도들은 사상이나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이들이 많다. 오늘 교회가 회개해야 할 죄는 이것일 것이다. 이 땅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교만하고 타락한 교회들 때문이다."

역자는 이 책이 길을 잃은 교회와 성도를 깨우고, 자성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

한편, 책을 추천한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저자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매우 심각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생산한다"며 "혼란기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며, 특히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보기를 간곡히 권한다"고 했다.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거짓으로 약속한 '교회와 국가 사이의 평화' 선언에 속절없이 속아서 독일 교회의 미래를 송두리째 갖다 바친 것처럼 어리석은 실패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들어야 한다"며 이 책을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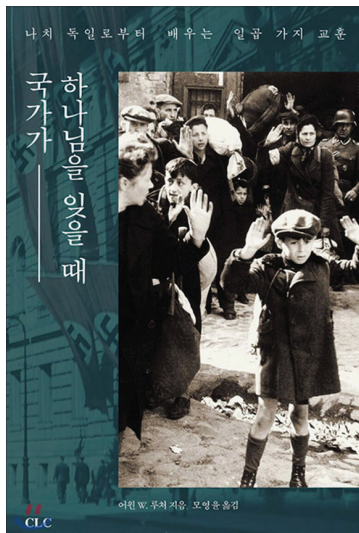
저자 어윈 W. 루처

위니펙싱경대(B.A.)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달라스신학교(TH.M.)와 로올라대(M.A.)를 졸업한 후, 웨스턴침례신학교에서 신학박사(TH.D.) 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부터 시카고무디교회 담임목사로 36년간 재직 후 은퇴했다. 저서로는 「히틀러의 십자가」(HITLER'S CROSS), 「실패: 성공으로 향하는 비상구」(FAILURE: THE BACK DOOR TO SUCCESS), 「낙원의 독사」(THE SERPENT OF PARADISE),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HOW YOU CAN BE SURE THAT YOU WILL SPEND ETERNITY WITH GOD?) 등 3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역자 모영윤

1961년 전북 장수에서 출생해 1982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군중병으로 군대에서 복무했다. 창원기능대학을 졸업하고 용접 기능장으로 용접 기술자 자격을 취득했다. 2008년 카타르 도하에 있는 대우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안수집사로 도하한인교회를 섬겼다. 그 후 2018년 8월 대우건설에서 상무로 퇴직하고 현재는 필그림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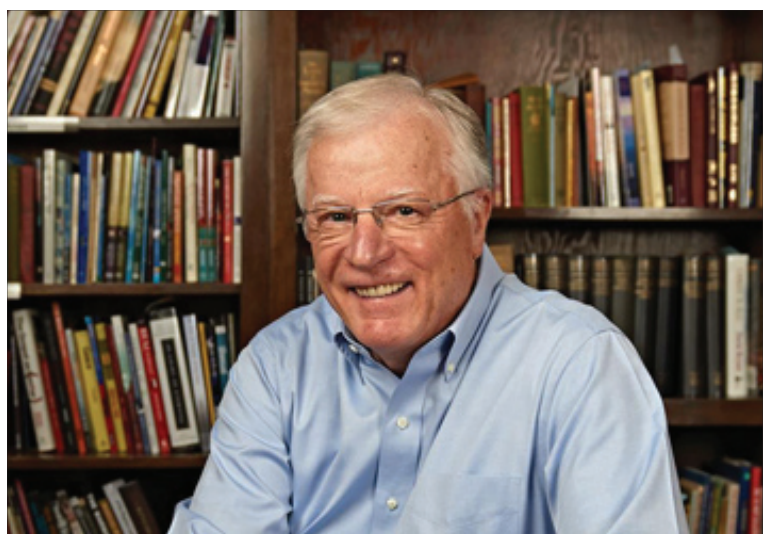
김진영 기자



국가가 하나님을 잇을 때
어윈 W. 루처
모영윤 역
CLC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사는 삶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자유에 대한 모든 도전으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복음을 증명할 또 다른 기회가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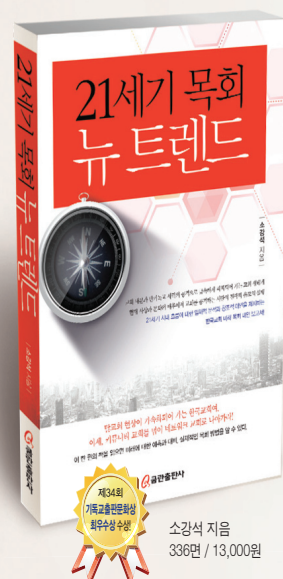
저자 어윈 W. 루처



「국가가 하나님을 잇을 때」 번역한 모영윤 역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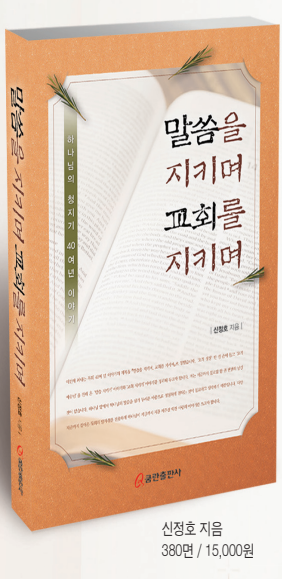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 실재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학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교회협의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가길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미션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상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사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호의 목회영신과 아름다운 순증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소강석 저음 339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학교, 침례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년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장, 총회 군-농어촌 부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본부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교 교역원, 연세대학교 이사, 한국노인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쿼란, 쿼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 1) Covid-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데 애가 집중도 못하는거 같고, 관리가 잘 될까요?
- 2)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중요한 시기인데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3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8월 10일 개학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